

A study on Current stat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a nursing college in Cambodia

You, Soo Ok¹, Koo, Kyen Hoe², Hong, Soo Mi³

¹Professor of Nursing, Life University, ²President of Life University, ³Professor of Paramedic, Jeon-Ju Vision University

Purpose :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College of Nursing at L University in Cambodia and to propose strategic direc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Cambodian nursing education.

Methods : Data were collected between January 2023 and August 2025. The analysis utilized institutional records from L University, along with survey data obtained from current students and graduates through email and direct onsite questionnaires.

Results : As Cambodia's first four-year nursing college, the institution maintains a rigorous curriculum consisting of 125 theory credits and 1,485 total practice hours (covering hospital rotations, community health, internships, and thesis work). While basic facilities are well-provided, there is a critical need for a full-time Dean of Nursing to replace the current acting concurrent leadership, as well as the modernization of clinical equipment to meet national standards. Clinical training is conducted at provincial hospitals and modern 500-bed facilities in Phnom Penh; notably, student satisfaction remains high despite personal financial burdens for lodging. Graduates have successfully entered diverse fields, with 78.8% expressing satisfaction with their roles, and a significant number have attained advanced degrees (39 Masters, 17 PhDs). However, students highlighted the need for more consistent curriculum delivery, improved access to textbooks, and upgraded simulation labs.

Conclusion : To achieve its goal of producing globally competent nurses, the college must secure stable faculty and specialized clinical instructors.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has declined since 2018, and utilize online practice systems with partner universities. Furthermore, nursing leadership should prioritize student-centered clinical placement in advanced hospitals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academic seminars and competitions. Continuous follow-up research is required to monitor the development of student competencies and the long-term advancement of nursing education in Cambodia.

Key words : Cambodia, nursing college, education, development direction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관련요인: 대학생활적응 관점으로

김혜진¹, 김정민², 김아란², 김채린², 박서빈², 신지민², 이선우², 이세진², 정재연², 홍은기²

¹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²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부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현장실습적응, 지각된 학습, 그리고 간호전문직관의 수준을 파악하고,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요인을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확인하여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전략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2026년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수집된 자료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174명이었다. 대학생활적응과 현장실습적응은 Park(2017)이 개발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측정도구에서 전반적인 대학생활적응과 현장실습적응을 사용하였다. 지각된 학습은 Rovai 등(2009)이 개발한 CAP Perceived Learning Scale을 번역-역번역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Yoon 등(2005)이 개발한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활적응 수준(범위 1-5점)은 평균 4.09점이었고, 하위영역은 대인관계 4.16점, 적극적 대처 4.16점, 학문충실도 4.14점, 취업준비 4.10점, 전공성취도 4.02점, 전공만족도 3.99점 순이었다. 현장실습적응 수준(범위 1-5점)은 평균 3.97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 현장실습을 통한 전공이해 4.22점, 현장실습에 대한 정서적 반응 3.78점이었다. 지각된 학습(범위 0-6점)은 평균 4.69점이었고, 하위영역은 정서적 학습 4.84점, 정신운동적 학습 4.70점, 인지적 학습 4.53점 순이었다. 간호전문직관 수준(범위 1-5점)은 평균 4.12점이었고, 하위요인은 간호서비스 역할 4.22점, 전문직 자아개념 4.16점, 사회적 인식 4.16점, 간호 전문성 4.12점, 간호정체성 3.79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 현장실습적응, 지각된 학습, 간호전문직관간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 관련요인은 성별, 대학생활적응, 현장실습적응이었고,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간호전문직관이 낮았고($\beta=-0.08$, $p=.026$), 대학생활적응이 높을수록($\beta=0.41$, $p<.001$), 현장실습적응이 높을수록($\beta=0.48$, $p<.001$)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그러나 지각된 학습은 간호전문직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대학생활적응 관점에서 탐색한 결과, 간호전문직관(전체, 전문직자아개념, 사회적인식, 간호전문성, 간호서비스역할, 간호정체성)은 대학생활적응, 현장실습적응, 지각된 학습과 모두 유의한 양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관련요인으로서는 성별, 대학생활적응, 현장실습적응이었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전반적 대학생활적응이 높을수록, 현장실습적응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해서는 대학생활적응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도록 교육과정 마련시 대학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교육시스템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주요어(Key words): 대학생활적응, 간호전문직관, 간호대학생, 학습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환자안전태도, 및 임상수행능력 간의 관계

김혜진¹, 김나영², 박지혜², 윤민주², 이가영², 이아인², 이진², 임연주², 홍희진²

¹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²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부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환자안전태도, 및 임상수행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고, 셀프리더십, 환자안전태도, 및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함양을 위한 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2026년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수집된 자료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92명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은 Lee 등(1990)이 개발한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Kim 등(2018)이 수정보완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은 Yang 등(2015)이 개발한 대학생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를 사용하였고, 환자안전태도는 Park & Park (2014)이 개발한 환자안전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pearson correlation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 수준(범위 1-5점)은 평균 4.2점이었고, 17개 하위요인에서 의사소통과 도전정신이 4.3점으로 가장 높았고, 창의성과 문제해결이 4.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 책임감, 전문성, 정직성, 긍정적사고, 자기주도성, 자기개발, 자기통제, 자아성찰, 동기부여, 목표수립, 시간관리, 자기보상, 대인관계는 모두 4.2점 이었다. 환자안전태도 수준(범위 1-5점)은 평균 4.2점이었다. 임상수행능력 수준(범위 1-5점)은 평균 4.3점이었고, 하위영역은 의사소통 4.3점, 간호과정 4.3점, 간호리더십 4.2점, 전문직 발전 4.2점, 간호술기 4.2점 순이었다. 임상수행능력은 셀프리더십(all $p < .01$), 환자안전태도($r = .27$, $p = .009$)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셀프리더십과 환자안전태도간에도 정직성과 자기주도성을 제외한 15개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all $p < .05$).

결론: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셀프리더십, 환자안전태도와 각각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환자안전태도간에도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미래의 전문의료인으로 서 전문화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 임상수행능력은 중요하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공적인 간호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환자안전태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Key words): 간호대학생, 리더십, 환자안전, 임상수행능력

대학생 제로웨이스트 실천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도 검증

조수미¹, 최은희²

¹한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을지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생활 맥락을 반영한 제로웨이스트 실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그 구성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적 연구이다. 선행 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된 예비 문항이 실제 표본에서 일관된 잠재 구조를 형성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요인 구조 탐색과 신뢰도 검증을 통해 최종 측정도구를 확정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질적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된 31개 예비 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고, 환경전문가 및 간호학과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 검증(I-CVI .80 이상)과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쳐 문항을 확정하였다. C도와 K도 소재 2개 간호대학 재학생 208명을 대상으로 2026년 2월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SPSS 28.0을 이용하여 문항분석, 주성분분석(PCA), Varimax 회전, Cronbach's α 계수 산출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요인분석 결과 31문항은 '환경참여 및 실천행동'(7문항), '지속가능한 소비'(9문항), '자원순환 및 배출'(6문항), '일회용품 저감'(6문항), '생활 자원절감'(3문항)의 5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누적 설명분산은 59.91%였다.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3이었고, 하위요인 신뢰도는 .69~.91 범위로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SNS 기반 참여와 온라인 행동을 포함한 '환경참여 및 실천행동' 요인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특수한 생활 맥락과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제로웨이스트 실천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그 내적 요인 구조와 신뢰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방법론적 절차에 따라 도출된 최종 도구는 5개 요인,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93, 누적 설명분산 59.91%를 확보하여 측정학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로웨이스트 실천이 다양한 차원과 문항 수로 제시되어 구조적 일관성이 부족했던 한계를 보완하고, 대학생 집단에 특화된 표준화된 평가 틀을 제시하였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도구는 제로웨이스트 실천을 단순한 분리배출이나 일회용품 절감 수준을 넘어, 예방적 건강행위이자 사회적 참여 행동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실천 수준이 낮게 나타난 다회용기 선택과 같은 영역은 물리적 인프라와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반대로 생활 자원절감 행동은 경제적 효율성과 결합될 때 실천이 촉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도구는 대학 및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중재 전략 수립과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Key words): 제로 웨이스트, 폐기물 관리, 학생, 심리측정, 검증 연구